

## 나면서 소경된 자(III)

요 9:24~41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해석을 직접 들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눈을 뜨게 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심으로써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보이게 하신 것은 적당한 기적이 아니라 확실한 기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개안의 가능성이 전혀없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정신력 집중 현상이나 최면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기적이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확실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확실한 기적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확실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확실한 기적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 **점차 영적 눈을 뜨는 소경된 자**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에 해석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저주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처지를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소경이 된 것은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들었고 또 실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지만, 점진적으로 영적 눈도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4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 주님을 한 인간으로 이해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씨 좋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로 이해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회생 불가능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로 발전해 있습니다.

셋째, 치유자에서 선지자로 좀더 발전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소경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한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는 말씀에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관점이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발전한 것입니다.

넷째,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고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그는 인간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자, 수가성의 여인이 ‘그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요?’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여인의 생각도 차츰 변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붙잡고 말을 하다가 통하지 않자, 그의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부모와도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재차 소경을 불러왔습니다.

### **옛 사람 벗고 새 사람 돼**

이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25절 말씀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겁을 먹고 말을 바꾸던 옛날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비겁자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소신을 갖고 자신의 주장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이다’며 ‘당신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니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도리어 힐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구별하는 소경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세상, 권력, 돈 등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 **용기 주는 믿음의 증거**

소경이었던 사람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눈 뜬 사람을 곤경에 몰아 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전된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험박하거나 야단치는 관계에서 서로 대등하게 토론하는 관계로 변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은 토론하다가 흥분하여 욕설까지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꾀변과 강요에 더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당신은 그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나면서 소경 된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자신의 체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이 확실한 증거로 주장하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하지 말고, 교회에 다닌다고 성경책을 낀 모습만 보이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

바리새인들의 꾀변과 음모는 소경이었던 사람의 확신에 찬 고백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 앞에 세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예수님의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한 순간에 번개 치듯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점진적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유치원생과 같은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곧 좀더 발전하게 됩니다.

예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한 인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난 뒤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주, 1달 후, 1년 후에 그 생각이 전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소경이었던 사람이 최종적인 이해에 도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며 거룩한 자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신의 눈을 뜨게 했으니, 분명히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절대자라야만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의 존재가 더욱 분명해 집니다. 논쟁을 거듭하다보면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점진적인 생각에 뼈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런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맙니다.

둘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 확인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혼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어떤 절대자다’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만나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지식, 이성, 학문으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과 만나서 확인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만남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나자마자 물으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은 그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던 주제였습니다. 소경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도적 자세를 보시고 ‘내가 그로다’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은 울동이를 내버려두고 기뻐하며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못 자국, 창 자국을 봤다고 얘기해 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며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도마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기적의 순간이 지난 뒤에 ‘내게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 **‘주여, 당신을 믿나이다’**

드디어 소경이었던 사람의 두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의

가슴은 방망이질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뜬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는 직접 주님을 만났다는 감격으로 인해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절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로 갈등하고, 때로 미숙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으로 품게 되는 질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닌가? 구원자인가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해답을 얻게 된다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당신께 절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희망과 복을 주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보지 못하는 자는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곧 희망입니다. 나를 보게 하신 분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희망과 복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복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왔다가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모든 고민, 절망, 허무, 권태 등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삶에 희망과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